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한모. 바오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송돈희. 요 셉 916-201-9859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지혜서 11:22-12:2	제2독서	테살로니카2 1:11-2:2	복음	루카 19:1-10
--------	------	----------------	------	-----------------	----	------------

◎말씀 < 자캐오는 우리 각자의 자화상 >

오늘 복음에 자캐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캐오는 키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오늘 복음 내용 바로 앞에는 눈먼 거지 바르티매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르티매오와 자캐오는 모두 당시 사회에서는 소외 계층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캐오는 거지였던 바르티매오와 달리 부자였지만, 세리라는 그의 직업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천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바르티매오는 눈이 안보여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캐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군중이 장벽이 됩니다. 군중은 잠자코 조용히 있으라고 소리치는 바르티매오를 꾸짖었고, 군중이 자캐오의 앞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두사람 모두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였습니다. 바르티매오는 더욱 큰 소리로 예수님께 외쳤고, 자캐오는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둘 다 간절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둘 다 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두 사람 모두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다시 보게 된 바르티매오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자캐오는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자기가 황령한 것들을 네 곱절로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더 이상 동족의

혈세를 갈취하며 부자로 살기를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바르티매오가 앞을 못 본 것도, 자캐오가 키가 작은 것도 죄는 아닙니다. 거지로 사는 것도, 세관장이라는 직업도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남들보다 더 불편하고 불리한 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르티매오와 자캐오는 그런 불리한 여건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던 것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바르티매오와 자캐오에게서 얻은 결론은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 구원은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자캐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킬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삶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이기심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분입니다. 그분께 다가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캐오는 우리 각자의 자화상입니다. 우리 모두 내가 만나는 이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분을 맞이 해야겠습니다.

일 자	전 레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11월5일(화)	연중 제31주간 화요일	오후7시30분	교무금 주일헌금	\$ 1,970.00 \$ 896.00
11월6일(수)	연중 제31주간 수요일	오전7시30분	미사예물 성소후원	\$ 340.00 \$ 30.00
11월7일(목)	연중 제31주간 목요일	오후7시30분	사회복지 성물방	\$ 30.00 \$ 50.00
11월8일(금)	연중 제31주간 금요일	구역미사	기타수입 주일학교	\$ 100.00 \$ 00.00
11월9일(토)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	오후5시	합 계	\$ 3,416.00
11월 10일(일)	연중 제32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아동: 23명 성인: 147명
교무금 봉헌자	주문엽(10-12월)김계숙(9-10월)김용문(6-10월)봉창의(7-8월)나송희(5-8월)엄영자(7월) 임상일.정영규(10월)			

◎신앙생활(본당의 새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집.동네의 샘입니다)

“세례받은 모든 이는 말씀의 선포에 협력” - 프란치스코교황 전교주일 삼중기도 가르침 중에서 발췌

프란치스코 교황은 연중 제29주일이자 전교주일 삼중기도 가르침을 통해 세례받은 모든 이는 예수님 안에서 자비가 죄를 이기고, 희망이 두려움을 이기며, 형제애가 적대감을 이긴다는 기쁜 소식을, 새로운 열정으로, 어디에서든 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례 제2독서는 사도 바오로가 자신의 충실한 협력자인 티모테오에게 보낸 권고를 들려줍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끈기를 다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타이르고 꾸짖고 격려하십시오.”(2티모 4,2) 사도 바오로는 비장한 억양으로 말합니다. 티모테오는 말씀의 선포에 대해 책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전교주일은 세례받은 모든 이가 말씀의 선포에 새로운 책임을 통해 하느님나라 선포에 협력할 필요성에 대해 더 깊은 의식을 갖기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100년 전 베네딕토 15세 교황님은 교회 전체의 선교책임에 새로운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교서 ‘가장 위대한 임무’를 선포했습니다. 모든 식민지와의 잔재에서 정화되고 유럽 국가의 정치적 확장정책 조건에서 벗어나도록, 세상 안에 선교를 복음적으로 재평가할 필요성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변화된 맥락에서도 베네딕토 15세 교황님의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메시지는 복음의 기쁜 소식에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자기중심적인 닫힌 마음’과 온갖 형태의 사목적 비관주의 유혹을 극복하도록 우리를 자극합니다.

우리 시대는 민족들의 특수성을 존중하고 세계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특징되지만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고

지구를 파괴하는 오랜 권력다툼과 획일화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신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자비가 죄를 이기고 희망이 두려움을 이기며, 형제애가 적대감을 이긴다는 기쁜소식을 새로운 열정으로 어디에서든 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

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분열이 극복됩니다. 오직 그분 안에 모든 인간과 모든 민족의 구원이 있습니다.

선교사명을 온전히 살아 내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있습니다. 곧 ‘기도’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선포된 예수님 가르침에 따라 끊임없이 바치는 열성적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루카 18,1) 제자들에게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기도는 선교사들을 위한 하느님 백성의 첫 번째 도움입니다. 선교사들은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의 빛과 은총을 주는 사람들이며, 복음을 선포하는 어려움에도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다음과 같이 자문해 봅시다. ‘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가? 하느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멀리 떠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가?’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태옥.안나/원정은.카타리나/백정심.막달레나 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김옥륜.세실리아 추소연.세실리아/엠안드레아/김숙자.수산나 서향자.글라라/김초지.마리아/최이주.베아따 이규청.제노비아/엠모니카/신용경.그레고리오 배미성.오틸리아/박모란.글라라/원헤리나.헬레나 고공자.벨라뎃다

◎기도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울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김배국.사도요한의 영혼	익명	생	허로사의 영육간 건강	아빌라회
연	이윤분.마리아의 영혼	이영숙.벨라뎃다	생	고원석.바오로의 건강회복	박프란치스코
생	손상영.세례자요한, 손재윤.베드로 가족의 영육간 건강	이영숙.벨라뎃다	생	김아영.소피아의 영육간 건강	이영숙.벨라뎃다

◎구원의 문◎

간  
장  
중  
지  
문을 열어도  
열어제치면 또 다가서는  
열수록 힘겨운  
손 끝에 굳은 살 얼마나 박혀야

또 문  
문  
문

유경환.클레멘스.시인

(광고) 본당의 쇄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Samurai Sushi</p> <p>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p> <p>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p>1.2.3 Auto Body정비</p> <p>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좋은 사람들, 좋은 이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p>  <p>510-688-0155 베로니카 510-688-0157 레이몬드</p>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p> <p>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cell</p>	<p>에어컨 수리</p> <p>Air Conditioner Service &amp;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SNOW WHITE DENTAL</p> <p>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p>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p> <p>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p>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p> <p>2335 American River Dr. Ste.100 Sacramento, CA 95825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Hair Story Salon</p> <p>9723 Folsom Blvd. #B Sacramento,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li> <li>·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li> <li>·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li> </ul> <p>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a href="mailto:maryseo@gmail.com">maryseo@gmail.com</a>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p>최병엽공인회계사</p> <p>Byungyeub Choi CPA &amp;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장의사</p> <p>W.F.Gormley&amp;Sons Funeral Home</p> <p>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a href="http://www.gormleyandsons.com">www.gormleyandsons.com</a>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p>		

♥ 새 생명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

민원기.시몬

양문숙.마리아 (이상 3구역)

●공동체 소식(본당의 쇠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세상을 떠난 모든이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열심히 기도합니다.
- 1.리노공소 미사안내  
일시:17일(일)성당에서 오후3시 출발  
참여단체;전교부.하상회.미사에 함께해주세요.
  - 2.모임안내  
구역장회의:3일(일)오후1시.엘리사벳방  
사회복지부:3일(일)교중미사후.루가방
  - 3.구역모임 및 구역미사(1구역)  
일시:8일(금)오후7시.적극적인 참여바래요.  
1구역(15명);8일(금)오후7시.임현재  
2구역(14명);9일(토)오후6시30분.박대련  
5구역(一명);8일(금)오후7시.성당  
6구역(13명);13일(수)오후7시.박병수  
7구역( 8명);10일(일)교중미사후.마태오방  
8구역(10명);10일(일)교중미사후.루가방  
9구역( 9명);10일(금)교중미사후.요한방  
10구역(11명);9일(토)오후6시,김혜주
  - 4.2019년 무료건강검진 결산보고  
총수입:\$2,700(도네이션)  
총지출:\$3,043.41백신&의료물품구입등)  
본당지원:\$343.41 도움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 5.성모신심미사 및 성시간  
일시;9일(토)오전10시30분.성당  
미사후 안나회.요셉회가 있습니다.
  - 6.꾸리아 간부 Workshop(서북미 한인꼬미시움)  
일시:15일(금)-17일(일)  
장소:Angels Camp 문의:윤재경.알베르또  
참가대상:꼬미시움.꾸리아간부.운영위원및가족

- 7.본당 댄스파티(청년회후원 위한)안내  
일시:16일(토)오후8-10시.입장료:\$20  
문의:장현철.엘리아 및 각구역부장
- 8.11월 위령성월기념음악회 안내  
일시:9일(토)오후7시30분  
장소:산호세성당(입장료:무료).게시판참조  
주제:죽음,영원한 삶을 향한 시작
- 9.성가대원 모집  
구원자이신 예수님탄생을 기쁨과 감사로 함께 찬미하실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문의:이윤상(849-1202) 서안나(600-1936)
- 10.교구 2차헌금  
일자:10일(일)모든미사  
목적:For the the Military Services
- 11.대림절 음악피정(찬미와 함께하는)  
일시:12월7일(토)오후7시-9시30분.성당  
12월8일(일)오후1시30분-3시30분.성당  
강사:원영배.어거스틴부제님(St.Bede성당)  
주제:오소서,임마누엘.  
천상의 노래를 품고 우리안에 오소서

<주일학교 소식>

- 주일학교 복사자 교육  
일시:16일(토)오후3-4시.성당  
대상:첫영성체받은 모든학생(아기예수반제외)  
대상자 학부모도 함께 참가바랍니다  
강사:김상돈.도미닐부제님

- 식사봉사(이번주):2구역 보조:신부님  
식사봉사(다음주):복지부 보조:이사도요한.전비아
- 먼저인사해요(주보봉사및인사나누기);7~8구역
- 예비신자 교리반:매주목요일 오후8시.데레사방
- 폐 플라스틱음료병,캔 매각수입(10월):\$51.05

화답송



저의임금이신 하느님 영영세세 당신이름을 찬미하나 이-다

전례봉사	연중31주일(11월3일)	연중32주일(11월10일)	연중33주일(11월17일)	그리스도왕대축일(11월24)
해설	김은영.폴리나	최금주.요안나	김은선.제노베파	김선영.플로라
제1독서	황호민.안드레아	안선미.미카엘라	조용주.마리안나	안선미.미카엘라
제2독서	황순덕.카타리나	박춘자.마리아	이영숙.벨라렛다	박춘자.마리아
복사	최진호.이상인	최준우.장현철	김규철.윤여훈	허호영.박성호
봉헌/기도/청소	7-8구역	7-8구역	7-8구역	7-8구역
헌금위원	임상일.안혜숙.박병수	고원석.윤재경.안강순	안병훈.박수옥.정의주	이영숙.임혜숙.이경희